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강구해야” 진안 공식 유튜브 ‘빠망 TV’

지역호감도 제고 위해 ‘호남의 지붕 진안고원’에서 변경

진안군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빠망 TV’로 전면 개편하고 지역호감도 제고에 나선다.

군은 지난 22일 진안고원 브랜드 위상을 강화하고 구독자와의 친근한 온라인 소통을 위해 공식 유튜브 채널의 이름을 ‘호남의 지붕 진안고원’에서 ‘빠망 TV’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EBS 인기 캐릭터 펭수는 물론 메신저 플랫폼의 양대 산맥인 카카오톡과 라인의 공식 캐릭터들이 소셜미디어는 물론 TV광고, 패선계까지 총횡무진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런 캐릭터 전성시대를 맞아 관공서 및 지자체 또한 지역 캐릭터를 통한 브랜딩 전략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진안군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진안홍삼 캐릭터 빠망을 축제, 홍보 등에 활용해왔다.

빨간망아지 빠망은 홍삼의 빨간색과 지연장할 것을 구체적 조치로 제시했다. 결의안 제안설명을 한 문은영 무주군의회 부의장은 “코로나19로 매출타격을 입어도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줄지 않았다. 선의의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하루 빨리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한민국 국회의 비롯해 청와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무주군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진안군 혁신뉴딜 TF팀’ 구성

진안군은 2021년 ‘진안군 혁신뉴딜 TF팀’ 구성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뉴딜 TF팀 구성은 정부 정책기조에 맞는 뉴딜사업을 포함한 지역혁신사업 발굴 및 진안군 여건에 맞는 정책개발 혁신조직을 구성하여 실제 적용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부군수를 총괄단장으로 미래전략팀, 뉴딜사업팀, 농촌재생혁신팀 등 3개 분과 40명 내외로 구성된 혁신뉴딜 TF팀은 팀별로 팀장을 임명하고, 팀장 주재하에 분과별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뉴딜사업 및 공모사업을 대응할 계획이다.

장수군, 산지공관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장수군은 지난 21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실·과·사업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지공관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마케팅유통 컨설팅 대표 배이만 박사가 보고자로 나서 비대면 스마트 경매타운 신설을 위한 타당성 연구결과 보고 및 혁신유통 체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군은 예능 프로그램과 축제 등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던 빠망에게 9급 명예공무원 임용장을 주고 기획홍보실 홍보팀으로 배치했다.

홍보팀에 소속된 빠망은 다양한 홍보영상에 출연해 마이산, 메타세쿼이아길, 진안군청, 진안고원시장, 청년몰, 홍삼한방센터, 홍삼연구소, 홍삼스파 등을 누비며 진안을 알리고 있다.

새해를 맞아 군은 친근한 소통으로 지역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온 공식 유튜브 채널 이름을 빠망 TV로 변경하고 채널아트도 빠망 이미지를 활용해 꾸몄다.

군은 특히 유튜브 채널과 함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톡 등을 연계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황양외 기획홍보실장은 “빠망 TV를 비롯한 진안군 5대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각종 정책과 정보, 행정서비스는 물론 진안농·특산물 구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숲과 계곡, 하천 등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군의회김용문 의장 자치분권기대해첼린지 동참

장수군의회 김용문 의장은 지난 21일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하기 위한 ‘자치분권기대해’ 첼린지에 동참했다.

장수군 장수군수의 지명을 받은 김용문 의장은 이날 자치분권 2.0 시대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소망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첼린지에 참여했다.

자치분권기대해 첼린지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고 자치경찰제가 75년 만에 부활, 지방자치 주체인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고자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김용문 의장은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에게 분산돼 지역 특색에 맞는 자치분권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동안 축적해온 역량을 바탕으로 장수군민과 함께 진정한 주민 중심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문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전리복도 교통문화연수원 정희관 원장, 전민일보 박종덕 편집국장, 농협중앙회장수군지부 장길환 지부장을 지명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지방도로 정비 사업 분야 ‘대통령상’

무주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방도로 정비사업 추진성과 평가결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영예의 대통령 표창은 무주군이 기존 산악도로의 위험 구간을 정비하면서 타 기관과의 업무협업과 지역특색에 맞는 신공법을 적용해 예산절감 노력에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은 대티지구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주관내에서 준공한 타 기관의 보조기공체 잔량 약 3,000㎡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약 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낙석위험 제거를 위한 특허공법(자체) 신공 후 초달청 2단계 경경 표 준평기공식에 의한 구매방식 변경으로 약 6,5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사업으로 국비 20여원을 포함해 총 6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2020년 5월에 완공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의회,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코로나19에 따른 고통과 부담을 떠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8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무주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대면 서비스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소상공인은 감염 위험 노출과 매출 하락은 물론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수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시간 단축, 집포 폐쇄 등 고강도의 영업제한을 받아왔다”며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부담은 보증을 받은 임대료를 충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주군의회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라면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누어야 하며, 부당하게 영업권을 제한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임차인 보호를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고 사회 구성원이 합리적인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의회는 특정 계층의 희생과



무주군의회가 코로나19에 따른 고통과 부담을 떠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위기를 함께 버텨낼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한다며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 추진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주각 감면하는 정부의 긴급재정명령 실시와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하도록 대책 강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수준 세제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할 것을 구체적 조치로 제시했다.

결의안 제안설명을 한 문은영 무주군의회 부의장은 “코로나19로 매출타격을 입어도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줄지 않았다. 선의의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하루 빨리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한민국 국회의 비롯해 청와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무주군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소상공 맞춤형 재난지원금 시행을”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지난 22일 제28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올해 첫 회기인 이번 회기는 2월 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1건의 의견청취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5일부터 29일까지는 2021년도 무주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무주군 정책의 발전적 시행방향을 모색한다.

이날 문은영 부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선택적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문 부의장은 우리 군에는 관광이 주산업 중 하나인 지역특성상 지역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식당·카페,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스키장비대여업 등 소상공인들이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11일간의 무주덕유산리조트 영업 중단, 숙박업소 및 식당 이용객 인원제

한으로 특히나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포기하고 무주를 떠날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 문 부의장의 설명이다.

문 부의장의 ‘선택적 맞춤형 재난지원금’ 제안은 ▲집합금지 및 제한업소에 대한 업종에 따른 선택적 지원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그룹을 구분한 차등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한다. 모두 관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핵심이다.

문 부의장은 소상공인들에게 군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며,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분들에게 소중한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청년정책협의체’ 발대식 갖고 본격 활동 돌입

지난 2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무주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 청년정책협의체)’의 앞으로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관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22명을 일

자리·주거’, ‘복지·문화’, ‘교육·소통’, ‘농업’ 분야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위원들은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주도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지역 청년문제 발굴·조사·개

선방안 모색, ▲청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제시 및 참여, ▲국내·외 청년단체·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를 증대해 나갈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청년들이 직접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무주, 정착하고 싶은 무주를 만드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